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9
Nov. 8, 2019, pp.161-163

4차 산업 육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보증기관의 새로운 역할

함윤하*
신용보증기금 팀장
차상원**
신용보증기금 차장

국 문 요 약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보증제도, 4차산업 육성, 포용적 성장, 사회적가치, 혁신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상호조합을 바탕으로 한 유럽의 보증제도와는 달리 공공보증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는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발전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기술 및 산업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Ⅱ. 신용보증기금 개요와 그간의 성과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신용보증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 신용보험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11.3조원의 일반보증과 0.5조원의 유동화회사보증을 신규 공급하였고, 20.1조원의 신용보험 인수와 394억원의 신규투자를 집행했다.

또한,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했다.

* yhham@kodit.co.kr
** chasw@kodit.co.kr

최근 이뤄진 연구에서도 신용보증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연립방정식 형태의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거시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이 자금공급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부가가치, 고용, 통화량, 조세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시적 관점에서도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의 고용 및 재무성과를 통합회귀분석, PSM-DID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증지원이 기업의 고용과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이영찬, 2018).

Ⅲ. 환경변화에 따른 기관 역할 변화

3.1. 미래성장동력의 지원 강화

지금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4차 산업 육성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플랫폼 구축,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첫째, 신용보증기금은 제조업 등 전통 산업 중심의 보증지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기업에 대한 역점지원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제조공정 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 프로그램들의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기술·품목정보를 DB화함으로써 기술지향 조직으로 전면 개편해가고 있다. 또한,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총량을 확대하고, 혁신창업기업 중 집중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퍼스트펭귄 기업, 강소기업 및 예비 유니콘기업 등)을 선별·육성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창업기업에 대한 Scale-up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직접금융도 활성화하고 있다.

3.2. 빅데이터 기반 사업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최대 지원기관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뱅크·플랫폼 운영기관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의 매입매출 정보, 금융기관 거래정보, 세금과공과 등 공공거래 정보 등을 집약하여 기업 활동지수를 개발하고 신용도 판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Bank를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 관리역량 향상, 핀테크 신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형 Paydex'를 개발하여 민간과 공유함으로써 상거래위험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해나갈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장기적 플랜을 바탕으로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혁신창업 플랫폼, 온라인 안심거래 플랫폼, M&A 중개서비스 플랫폼은 그 예이다.

3.3. 사회적가치의 발굴과 확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발굴과 확산은 신용보증기금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재무적 이익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금융 지원 총량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셜벤처 및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향후에는 표준화된 사회적가치 측정체계를 도입해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판별과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금융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제도 혁신, 사전구조조정을 통한 재도약프그램과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을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 강화 등,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안전망 구축기관으로서 한국 경제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4. 대고객 서비스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혁신기술 융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변화는 쉽고 빠른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업무처리 플랫폼을 도입해 고객이 웹(web) 또는 앱(app)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업무를 처리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방문 소액보증과 무방문 기한연장 서비스 확대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이며, 고객이 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많은 자료들도 자동화·전자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갈 계획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 속에는 과거보다 더 많은 리스크에 대한 노출 우려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최근 한국 정부는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단행

하기도 했으며, 이는 보증기관의 영업환경과 신용위험 노출 수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경영자의 책임경영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적정 운용배수를 엄격히 산정·관리함으로써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결론

4.1 공적보증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

저성장과 양극화는 한국경제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와 늘어난 부가 사회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OECD, EU, UNDP 등의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포용적 성장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성장, 공정분배, 혁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 가운데 신용보증제도가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변화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혁신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는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준(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서비스 혁신의 과제. *정책개발연구*, 18(1), 159-193.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보고대회(2017.7.19.)

노용환·송치승·홍성철(2015),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적정 환류 시스템 구축. *한국중소기업학회*

대한민국 청와대(2018). *문재인대통령 연설집.* 제1권(하),

대한민국 정부(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제3차 일자리위원회(2017.10.18.)

대한민국 정부(20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2.18.)

대한민국 정부(2018).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2018.3.19.)

대한민국 정부(2018).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2018.8.13.)

신용보증기금(2018). *2018년 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2019). *2019년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염명배(2016). 저성장시대, 재정 트릴레마 극복을 위한 새로운 재정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재정학연구*, 9(1), 45-85

염명배(2018).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임금)노동의 소멸, 여가혁명,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 *경제연구*, 36(4), 23-61

오종석·홍성욱·강두용(2018).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수출승수. *사회경제평론*, 56호

이영찬·권상집·백정한·안경민(2018).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신보의 사회적가치 증대 방안.*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이영찬·백정한(2018). *신용보증의 적정운용배수 산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이인호(2015).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금융정책과 벤처금융산업. *KIF Working Paper,* 15-09, 한국금융연구원

이종욱(2018). 시스템 위기하의 포용적 성장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통화정책의 한계. *중소기업연구*, 40(4), 95-116

홍장표(2014). *소득주도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제13회 동반성장포럼 발표자료

Schwab, K.(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S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humpeter, J. A.(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per and Row.

Stiglitz, J. E., & Weiss, A.(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393-410